

<2021년 1월 3일 주일말씀>

영도 육도 새롭게

본 문 로마서 12장 1~9절

『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
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
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
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
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
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
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
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
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
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
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
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
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
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
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
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,
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,
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,
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,
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,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,

금흠을 베푼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
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』

<전초>

1. 우리의 ‘마음가짐’ 만으로는 온전히 새롭게 할 수가 없다. 하나님과 성령님의 <정확한 방향>이 있어야만 온전히 새롭게 할 수가 있다.
2. <성경 역사>는 항상 ‘시대마다 새롭게 했던 역사’ 다. ‘하나님의 뜻’ 이요, ‘새로움의 역사’ 다.
3. <성경의 인물들>은 ‘새롭게 함’ 으로 변화를 먼저 받고, 그 시대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끌었다. 이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였고, ‘하나님이 바라시는 뜻’ 이었다.
4. <주님>도 그러하셨다. 한마디로, ‘새롭게 함’ 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 섭리사를 세우시고 이끌어오셨다.
5. 주님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께 배우고 기도하면서 늘 새로운 길을 걸어오시며 항상 새롭게 하셨다. 이것이 바로 ‘하나님의 뜻’ 이었고, 하나님과 예수님이 약속하신 <새로운 역사>였다.
6. 우리도 이와 같이 ‘새 시대 말씀’ 을 듣고 ‘새 시대를 맞음’ 으로 ‘새롭게 변화’ 가 되었다. 여기서 <더 차원 높이려면> 또

‘새롭게’ 해야 된다.

7. 새롭게 하되, <개성>대로 연구하고 노력하며 새롭게 하는 것이다.

8. 개성대로 하되 항상 <중심>이 있어야 한다. ‘하나님과 주님의 뜻’을 중심에 두고 새롭게 하는 것이다.

<말씀 시작>

9. 2021년의 <21>은 ‘7, 7, 7’에 해당되는 숫자다. ‘완성하는 해’다. ‘완전히 새롭게 하는 해’다.

10. 오늘 예배도 앞에 ‘큰 화면’을 놓고 새롭게 해서 하고 있다. 과거 중국에 혼자 있을 때도 새롭게 하고자 벽에 ‘사진’을 다 붙여놓고 했다. 그러니 말씀도 더 실감 있게 나왔다.

11. 하나님은 사명에 ‘그때마다 필요한 사람’을 쓰신다. 감동이 왔을 때는 본인이 전체를 대표해서 해야 한다.

12. <영육 새롭게> 표어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‘하나님과 성령님의 계획’이 있어서 구상하시고 그 핵심을 말씀해주신 것이다.

13. 마음도 몸도 혼도 영도 ‘새롭게’ 되고 ‘변화’되어야, 이 시대 하나님이 사랑하는 신부 대상으로서 <하나님 성령님의 계획

하신 일>을 한다.

14. 올해에도 못 하면 못한다. 그러니 절대적으로 할 때 꼭 해야 한다.
15. 2020년에 할 일을 다 했다. 이에 하나님은 ‘승리했다’ 말씀하셨다. 이제 <2021년에 새롭게 할 일>을 생각해야 한다.
16. 잘 되려면, 고생을 덜 하려면, 걱정거리가 안 생기려면 <새롭게> 해야 한다.
17. 지구촌에 사는 사람마다 더 좋게 되기를 원한다. 마음도 생각도 행실도 <새롭게> 해야 더 좋게 살 수 있다. - 이 말은 진실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. 고로 이 말을 듣는 자들은 행해야 할지니라.
18. 항상 더 좋게, 더 새롭게, 더 기쁘게, 더 희망을 이루며 살아야 한다. 그러려면 ‘변화’ 되어라.
19. (롬 12:1) <산 제사>는 생명력 있는 제사,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는 제사, 알고 드리는 제사다.
20. <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>는 것은 ‘주와 함께 예배하라’는 것이다. 이와 같이 <산 제사>는 ‘새롭게 하며 그 시대 주와 함께 드리는 제사’ 다.

21. (롬 12:2) ‘하나님이 기뻐하는 것’ 이 무엇인지 간곡히 분별하고 기도하며 자꾸 연구하여라. ‘올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’ 은 <새롭게 하라>는 것이다.
22. 하나님과 성령과 주를 사랑하고 좋아한다면 ‘더 기뻐하시는 뜻’ 이 무엇인지 분별하고, 기도하고, 연구하고, 지혜롭게 행함이 마땅하지 않느냐.
23. 선생은 올해에 하루에 하나씩 ‘시’ 를 꼭 쓰겠다고 결심하니, 벌써 ‘60편’ 이 넘게 썼다. 이와 같이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달라진다.
24. <시>는 묵시이며, 교훈이고, 하나님을 찬양하는 문학이다. 하나님과 연결된 시여야 살아있는 시다.
25. 열심히 새롭게 하지 않으면 그런대로만 살아간다.
26. ‘생각지 못한 자’ 로부터 <답>이 온다. 부모들은 ‘자녀’ 를 통해 답을 준다는 것을 명심하여라.
27.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성령과 주는 ‘더 이상적인 터전’ 도 새롭게 할 때 주신다.
28. 2021년은 <변화의 해>다. 모두 더 이상적으로 변화되어 매일 행해야 한다.

29. 올해에는 더 노력하고 연구해서 하나님과 성령과 주가 ‘기뻐하시는 뜻’을 찾아 행하고, ‘지혜’를 받아 땅에 속한 것과 하늘에 속한 것을 ‘분별’해야 희망이 이루어진다.
30. ‘변화’에서 더 깊이 들어가면 <부활>이다.
31. (롬 12:3) 선을 넘지 말고, 자기 것에 충성을 다하라.
32. (롬 12:4) 머리가 할 것이 따로 있고, 지체가 할 것이 따로 있다. <지체>는 ‘머리 증거’다. 그래야 ‘순리의 물’이 되어 흐른다.
33. 분량대로 나누어 ‘지체’대로 해야 한다. 혼자서는 능력이 없어서 못 하고 시간이 없어서 못 한다.
34. 맡길 사람이 없다고 하지 말고 반복해서 가르치고, 기르고, 만들어라. ‘3년’은 가르쳐야 한다. ‘소나무’도 퇴비하고 길러서 두 아름씩 성장했다.
35. 어떤 것은 지도자보다 더 잘하는 자도 있다. 유치부도 중고등부도 그런 것이 있다. 또 새롭게 찾아보라.
36. 어린 새도 크면 ‘노래하는 새’가 되듯이, 무조건 다 ‘잘할 수 있는 능력’이 있다고 보고 맡기고 길러라.
37. 사명을 맡은 자들 모두 더 새롭게 해야 한다. 새롭게 안 하면

‘작년의 차원’을 반복한다. 새롭게 해야 하나님을 따라간다.

38. 올 한 해 동안은 <새롭게 하라>는 말씀을 생명 시 하고 잊으면 안 된다. 선생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새롭게 해놓으니 벌써 많이 얻었다.

39. 선생도 10대 때 새롭게 하지 않았으면 ‘기성 신앙’에서 살게 됐을 것이다. ‘새롭게 함’으로 <변화>를 받아서 이런 어마어마한 세계를 하나님과 같이 만들고 창조했다.

40. 과정은 힘들고 어려웠다. 어렸어도 선생 스스로 ‘이렇게 살아가는 안 되겠다.’ 크게 깨달았지만 가르쳐줄 사람이 없었다. 그때 로마서 본문의 ‘저들을 본받지 말고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.’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다.

41. 선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최고 잘 믿는데도 삶이 어렵고 힘들고, 종교인들을 보아도 특별한 것이 없어서 다른 것이 없는지 찾으며 ‘세상’으로 벗어나려고도 해봤다. ‘대하는 대로’ 대해주시니, 그때 하나님 성령님도 예수님도 가만히 놔두셨다.

그러나 그 길로 가다가 결국 운동 중에 크게 다쳐서 ‘30분 시한부’가 걸렸다. 예수님께서서는 “지금까지 내가 너를 그렇게 살려주었는데 그 길로 가느냐.” 책망하시며 ‘그동안 살려주신 일들’을 주마등처럼 보여주셨다.

부끄럽고 죄송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니, 예수님께서서는 “하나님께서 용서해준단다. 앞으로 그렇게 안 하면 끝난다. 영원히 불신하지 말고 영원히 따르는 것이다.” 하셨다.

42. ‘내가 원하는 것’을 하는 것은 <불신>으로 보신다. 이성의 생각과 저성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이다. 땅과 하늘의 해석이 다르다.
43. 결국 회심하고 ‘3만 명’ 전도해서 바치겠다고 결심했다. 그때부터 ‘용문골 골짜기’에 들어가서 <새로운 길>을 새롭게 함으로 찾았다.
44. 예수님은 “신약인들은 모르니까 오면 내가 대하듯 잘 좀 대해 줘라. 책망할 것이 있어도 내가 할 테니, 너는 ‘마지막 사람’이니 하면 안 된다.” 항상 말씀하셨다. 그 말씀에 참고 참았다. 예수님을 사랑하니 ‘예수님이 사랑하는 자’를 잘 대해주는 것이다.
45. 이와 같은 길을 너희도 많이 겪었을 것이다. ‘대하는 대로’ 대해주신 것이다. 다시 결심하고 돌아온 자들은 <오리지널 A+, A의 길>로 돌아온 것이다.
46. 못하면 못하는 대로 ‘주의 품’에서 자꾸 커야 한다.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.
47. 너희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장기적으로 뛰어야 할 ‘하늘 공무원들’이다.
48. 길은 많고 많으니라. 그중에서 어느 길이 ‘가장 좋은 길’이나

는 것이다. 남한강 돌도 수십 가지 중에 ‘가장 좋은 것’ 이 무엇인지 따진다.

49. 너희가 온 길은 ‘더 이상 없는 최고 성공의 방향’ 으로 온 길이다. 방향만큼은 정확히 잘 왔다.

50. 예수님은 하나님을 말씀을 하나씩 깨우쳐주며 “그와 같이 살라.” 말씀하셨다. 34세 때는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올라갔다. 예수님 말씀하시기를, “내게는 모두가 한 혈통이니,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.” 하셨다. 어려움을 겪고 이겨내서 오늘날의 현실이 이루어졌고, 세계 70여 개국 나라에 복음이 전해졌다. 이는 <새로운 길>로 왔기 때문이다. 어려서도 <새롭게> 해야 한다는 것이다. 누가 뭐라고 해도 ‘예수님’ 만 믿고 따르니 이같이 됐다.

51. 우리는 새롭게 함으로 ‘천 년 역사’ 를 시작해 가고 있다.

52. 예수님은 “나는 지금 있는 것을 말한다, 본 것을 말한다.” 말씀을 자주 하셨다.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하시나 보니, 예수님이 성경의 핵을 ‘이스라엘 풍속과 삶의 현실’ 을 실제 보고 말씀하신 것이었다.

53. <의자>도 보면 너무 간단한 원리로 만들지만, 나는 못 만드니 사다가 쓰는 것이다. 이와 같이 <성경>의 모든 말씀도 풀어보면 간단하지만, ‘주’ 가 아니면 못 푼다. 고로 주께 신세를 지고 말씀을 들어야 한다.

54. 마음도 육도 영도 새롭게 해야 ‘새로운 생명’이 계속 돌아온다. 이전같이 하면 ‘이전과 같은 생명’이 온다.
55. 진실로 말씀하니, <하나님의 역사>는 점점 차원을 높여가니 자꾸 새롭게 생각하며 ‘더 좋은 방법, 더 나은 방법’으로 살아야 보람 있게 최고 이상적으로 희망을 이루며 살 수 있다.
56. 2020년에 선생은 새롭게 함으로 각종 것을 많이 받았다. <주>를 통해 먼저 행하시고, 이제는 <모두>가 그와 같이 받으라고 2021년에 ‘새롭게 하라’ 말씀해주었다.
57. 선생도 지난해 엄청나게 공부도 하며 ‘새롭게’ 해서 받았다. 불철주야 새로운 것을 찾고, 뭘 해놓고 보여주려고 밀어 붙여가며 했다. 코로나 기간에 해놓은 것은 ‘3일’은 봐야 다 볼 것이다.
58. ‘설교할 때’도 지난주에 <주>가 먼저 행한 것을 <지체>에게 그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을 준다. ‘한 해 동안’도 동일하다.
59. (시 103:5) 이 좁은 월명동 땅에 <검독수리 한 쌍>이 살고 있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다.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. 독수리를 ‘징조’로, ‘표적’으로 쓰셨다.
60. 사람이 아니라 ‘하나님’이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. 본인이 잘못하면 <상대>를 통해 계시해 보여주신다.

61. ‘독수리’ 같이 산 정신이 되어 새로운 기를 받고, 자연의 깨달음을 받고 <개성의 신부, 독수리의 신부>가 되어야 한다.
62. (겔 18:31) <영>이 새로워져야 <육신>의 버릇을 다 고쳐놓는다. 영이 육신을 잡는다. ‘새롭게’ 하지 않으면 죽는다. 너희 육도 영도 살려면 ‘새롭게’ 하라.
63. 새 역사를 펴도 구시대 사람들은 외면한다. <구약 종교인>들도 ‘메시아 예수님’을 새롭게 따르지 않고, 결국 육도 영도 ‘사망권’에서 살게 됐다.
64. 이 시대도 그러하다. 예수님 약속대로 ‘새로운 역사’가 시작돼서 20년이 넘도록 가고 있지만 모르니 외면하고 불신하고 밀어냈다. 그들은 그 육도 영도 ‘사망권의 주관’을 받고 살고 있다.
65. (롬 7:6) 섭리사 사람들도 ‘구시대 신약권’에서 벗어나 <성약권의 신부>가 되어 희망을 이루고 휴거를 이루고 살고 있다. 이것이 얼마나 ‘기적’이고 ‘표적’인지 깨달아야 한다. 이를 귀하게 여겨라.
66. <새롭게 해야> ‘휴거의 차원’을 확 높인다. <새롭게 해야> ‘청춘’을 휘날리며 독수리와 같이 힘 있게 날 수 있다.